

《左傳》戰爭描寫試論

朴 晟 鎭*

◁ 目 次 ▷

I. 서론	2. 戰時
II. 본론	3. 戰後
1. 戰前	III. 결론

I. 서론

春秋時代는 周王室이 쇠미해지고, 제후들이 中原의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각축을 벌이던 시기이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빈번하였고, 이들의 전쟁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左傳》은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따라서 《左傳》에는 전쟁에 관한 기록이 많다. 그런데 이런 기록 중 적지 않은 부분은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주지하듯 《左傳》의 작자 左氏는 戰國시대의 사람이다. 난세에 살면서 무수한 전쟁을 겪고 들은 그는 史家로서 전쟁에 대한 나름의 정의와 관점이 있었고, 그것을 《左傳》을 통해 세상에 전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春秋無義戰 혹은 羞稱五霸와 같은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¹⁾ 左氏는 一戰而霸 文之教也라고 선언하며, 霸者를 긍정하며 찬양했다.²⁾ 그는 진정으로 文德을 갖춘 霸者가 나타나 천하를 편안하게 해 주길 희망했다. 이런 그의 열망은 《左傳》안에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나가서 심혈을 기울여 서술하도록 만들었다. 단순히 전쟁이 많았던 시대를 기록하다 보니 전쟁기록이 많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시대와, 左氏 자신의 성찰이 함께 만든 것이다. 이것이 《左傳》전쟁묘사가 탁월한 성취를 이루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다. 本稿는 《左

* 崇實大 中文科 講師

1) 《孟子·盡心下》: 《荀子·仲尼》

2) 《左傳》僖公 27年: 拙稿 《左傳의 思想傾向》: (《中國文學研究》 2000년 제21집), 11-18 쪽 참조.

傳》전쟁묘사의 문학적 성취를 분석하고자 의도한 글이다. 물론 여러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하나의 전쟁을 戰前, 戰時, 戰後의 세 時期로 나누어서 각 時期別 묘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描寫의 집중과 時期의 선택

《左傳》서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劉勰을 위시한 많은 이들의 높은 평가가 전해 온다.³⁾ 근세에 와서도 이런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⁴⁾ 그런데 많은 이들이 《左傳》의 서사를 논할 때 그 특기할 만한 성취로 전쟁묘사를 말한다. 이것은 《左傳》서사에서 전쟁묘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아주 단순하게 그 이유를 생각하면 물론 전쟁묘사의 편폭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左傳》에는 59개국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 모두 小國이 大國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실로 春秋無義戰이라는 개탄이 절로 나올 만하다. 물론 大國간의 爭霸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편폭도 천양지차이다. 특기할 것은, 동일한 책에서 같은 소재를 중복해 서술하면 凡庸하기 쉽고, 혹은 千篇一律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데, 《左傳》은 매 전쟁마다 중점을 바꾸어 쓰기에 이런 결점이 방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몇 편의 전쟁묘사가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자세히 보면 한번은 행동에 중점을 두었으면 다음에는 언어에 중점을 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복을 피하고 있다. 《左傳》전쟁묘사가 지금까지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서사의 기법에 있는 것 같다. 아마 劉熙載가 말한 剪裁運化之方, 斯爲大備란 이를 말하는 것 같다. 本稿가 말하고자 하는 描寫의 집중과 時期의 선택이란 것도

- 3) 劉勰 《文心雕龍·史傳》: 「《左傳》實聖文之羽翮, 記籍之冠冕也. 辭宗丘明.」; 劉知幾 《史通·載言》: 「使讀者尋繹不倦, 覽風忘疲. 蓋左氏爲書……敘事之最.」; 賀循 《經義考》169卷: 「左氏之傳, 史之極也. 文采若雲月, 高深若山海.」; 陸游 《渭南文集》: 「前輩于左氏傳, 太史公書, 韓文, 杜詩皆通讀暗誦.」; 方苞 《方望溪先生文集》: 「夫記事之文, 成體莫如《左傳》.」; 劉大樞 《論文偶記》: 「不著脂粉而精彩濃麗, 自《左傳》莊子史記而外, 其妙不傳.」; 林紓 《左傳滄華》: 「一左一馬一韓而已.」; 劉熙載 《藝概·文概》: 「可知其衆美兼擅矣, 剪裁運化之方, 斯爲大備.」; 章學誠 《章氏遺書》: 「敘事之文……其法莫備于《左傳》.」
- 4) 梁啓超 《要籍解題及其讀法》: 「《左傳》……可謂極技術之能事, 故專以學文爲目的, 《左傳》亦應在精讀之列也.」(《史地學報》, 1924, 第8期); 錢鍾書 《管錘編》: 「吾國史籍工于記言者, 莫先乎《左傳》.」(北京, 中華書局, 1994), 164쪽;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左傳》……戰國時代無可否認的最優秀的歷史散文作品」(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70쪽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 전쟁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일일이 그 발생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일관하는 중심을 잡지 않고, 이런저런 모든 사건을 서술하다 보면 도리어 사건의 진상을 흐리게 하며 독자들은 힘들게 읽어도 오리무중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전쟁이던 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잡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전쟁기록에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가. 바로 전쟁의 승패에 관련된 사건이나 요인들이다. 《左傳》의 전쟁묘사가 분량이 많아도 번잡하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적은 것은 이 점에 주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에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쓰고, 승패와 관련 없다면 큰 것이라도 취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필요한 재료를 취사하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 있기에 각 전쟁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저마다의 상징성을 가지고 서로 어울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左氏 전쟁묘사의 특징이며 독자를 흡인하는 요인이다. 상술했듯, 本稿는 《左傳》전쟁묘사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의 전쟁을 둘러싼 세 단계의 시간과 전쟁묘사와의 관계만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그 진행 시간으로만 나누어 본다면, 戰前과 戰時 그리고 戰後의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각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戰前

戰前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원인, 쌍방의 준비, 심리상태, 군대의 배치 등을 말한다. 戰時는 쌍방의 交戰상황을 말한다. 戰後는 전쟁의 결과 및 그로 일어난 크고 작은 영향을 말한다. 물론 어느 하나도 그 서술에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세 시기를 최대한 골고루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쟁서사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左氏는 이런 판단을 뒤집는다. 다시 말해 左氏는 편목을 골고루 배분하려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曹劌論戰”이란 제명으로 유명한 齊·魯의 長勺之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魯 莊公 10년 봄, 齊나라 군사가 우리 魯나라를 공격했다. 공이 나가 싸우려 하는데 曹劌가 공을 뵈자고 요청했다. 그러자 그의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높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일에, 어찌 자네가 참견인가?”라고 했다. 이에 曹劌가 답했다. “높은 사람들은 식견이 적어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네” 그리고는 궁에 가서 입금을 뵈었다. 曹劌가 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믿고 싸우려 하십니까?” 그러자 공이 대답했다. “衣食 등 생활에 수요되는

물건들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네.” 曹劌가 대답했다. “작은 은혜는 널리 배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백성들이 임금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이 다시, “조상에게 제사드릴 때, 제수를 분수껏 올리며, 나라의 실정을 사실대로 아뢰고 있다.” 그러자 曹劌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그마한 성실로는 神靈의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神께서 福을 내려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공이 말했다 “작고 큰 모든 訴訟을 다 자세히 살피진 못했지만, 반드시 人情과 事理에 맞게 처리하고 있네.” 曹劌가 대답했다. “이는 백성을 위해 진정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싸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투에 저도 따라갈 것을 원합니다.” 공은 그와 같이 전차를 타고 長勺에서 싸웠다. 공이 북을 쳐 진군하려 하자, 曹劌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齊나라가 세 차례 북을 치며 공격해 왔다. 그들의 공격이 그친 뒤 曹劌가 말했다. “이제 공격하십시오.” 齊나라 군사가 大敗 했다. 공이 齊軍을 추격하려 하였다. 그러자 曹劌가 말했다. “아직 안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차에서 내려, 齊軍의 전차 바퀴 자취를 살펴보고, 또 전차의 앞 가로막이 나무에 올라 적군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제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나라 군사를 추격했다. 싸움에 이기고 나서 공은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曹劌가 다음같이 대답했다. “전쟁이란 것은 용기로 하옵니다. 한 차례 북을 쳐 공격할 때에는 용기가 왕성하고, 제차 북을 치며 공격할 때는 용기는 약해지며, 세 번째 북을 치며 공격할 때는 용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세 차례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적군의 용기가 다 가라앉은 뒤에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 군사들은 첫 번째 북에 사기가 충천한 기세로 나가 싸우니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는 그 속을 추측기 어려우니, 혹시 매복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전차바퀴의 자취가 난잡하고, 또 그들의 깃발이 서로 앞을 다투느라고 이리 저리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한 것입니다.”(春, 齊師伐我, 公將戰, 曹劌請見, 其鄉人曰: “肉食者謀之, 又何間焉?” 劌曰: “肉食者鄙, 未能遠謀。” 乃入見, 問何以戰, 公曰: “衣食所安, 弗敢專也, 必以分人。” 對曰: “小惠未徧, 民弗從也。” 公曰: “犧牲玉帛, 弗敢加也, 必以信。” 對曰: “小信未孚, 神弗福也。” 公曰: “小大之獄, 雖不能察, 必以情。” 對曰: “忠之屬也, 可以一戰, 戰, 則請從。” 公與之乘, 戰于長勺, 公將鼓之, 劌曰: “未可。” 齊人三鼓, 劌曰: “可矣!” 齊師敗績, 公將馳之, 劌曰: “未可。” 下, 視其轍, 登軾而望之, 曰: “可矣!” 遂逐齊師, 既克, 公問其故, 對曰: “夫戰, 勇氣也, 一鼓作氣, 再而衰, 三而竭, 彼竭我盈, 故克之, 夫大國, 難測也, 懼有伏焉, 吾視其轍亂, 望其旗靡, 故逐之。”⁵⁾

全文은 220字 인데, 116字를 戰前에 할애하고, 52字를 戰時에, 52字를 戰後에 서술하고 있다. 戰前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魯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쟁은 약국인 魯가 강국 齊에 대항하는 것으로, 魯 莊公이 어떤 준비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戰前의 상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左氏는 戰前의 상황을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기법을 사용한다. 魯 莊公과 曹劌의 대화를 통해 당시 魯나라의 상황을 자연스레 소개하고,

曹劌가 莊公에게 민심을 얻은 기초에서 작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서술한다. 이 것으로 魯나라의 승리는 확보된 것이므로, 左氏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다. 반대로 戰時의 상황은 擊鼓와 逐敵이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비교적 간단히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이 부분이 左氏의 着眼處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도리어 戰後에 52자를 할애하여 曹劌의 말을 통해 이 전쟁은 어떤 作戰原則으로 승전했는가를 설명하고 문장을 맺는다. 만약 우리가 다시 全文을 검토하면 사실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고 간단하게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齊師伐我를 보면, 齊가 왜 魯를 치는지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다. 또한 전쟁과 관련한 사항들, 예컨대 쌍방의 總帥, 兵力, 戰後의 성과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의 사항은 전쟁의 승패와 무관한 것으로 이런 것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논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曹劌의 議論과 행동으로부터 출발해 그의 論戰을 서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바로 승리를 거둔 결정적 요소를 써내는 것이다. 이것이 최대 관건을 잡아내어 쓰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戰前에 主眼하여 쓴 것으로 晉·秦의 穀之戰은 더욱 극명하다. 문장을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魯 僖公 32년 겨울, 晉의 文公이 세상을 떠났다. 庚辰날에 曲沃에서 殯하고자 絳城을 떠났다. 그때 靈柩에서 소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러자 卜偃이 大夫들에게 拜禮를 하게 하고 말했다. “돌아가신 先君께서 큰 일을 명하고 계십니다. 장차 西方의 군사가 우리 나라를 통과할 것인데, 그 군사를 치면 반드시 大勝할 것입니다.”

鄭나라에서 수비를 맡고 있던 杞子가 사람을 보내 秦나라에 이렇게 보고했다 “鄭나라가 저에게 도성 北門의 열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비밀리에 보낸다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秦나라 穆公은 蹇叔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蹇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먼길을 가면 군사들이 피로할 것이며, 이런 상황으로 먼 나라를 습격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군사들이 피로하면 그 역량이 쇠잔하고,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면, 아마 성공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대의 행동을 鄭나라는 반드시 알 것입니다. 힘을 들이고도 좋은 결과가 없으면 반드시 叛心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갈 길이 천리나 되는데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穆公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孟明·西乞·白乙에게 군대를 동문 밖에서 출발하게 했다. 蹇叔이 소리내어 울며 말했다. “孟明! 나는 우리의 군대가 출발하는 것은 보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네!” 이에 穆公이 사람을 시켜 蹇叔에게 말했다. “네가 무엇을 아는가? 우리 군대가 돌아 올 때면 너의 묘 앞에 심은 나무가 한이름이 되어 있을 것이다.” 蹇叔의 아들이 원정군에 참여했다. 蹇叔은 통곡하며 아들에게 말했다. “晉나라가 우리를 막아서 싸울 곳은 반드시 散일 것이다. 散에는 두 언덕이 있는데, 그 남쪽 언덕은 夏나라 虢의 묘지인 언덕이고, 그 북쪽 언덕은 周나라 文王이 비바람을 피하였던 곳이다. 너는 반드시 이 사이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의 뼈를 거두겠다!” 秦軍이 드디어 동쪽으로 출발했다.(僖公 32年 冬, 晉文公卒, 庚辰, 將殯于曲沃, 出絳,

柩有聲如牛。卜偃使大夫拜，曰：“君命大事，將有西師過軼我，擊之，必大捷焉。”杞子自鄭使告于秦曰：“鄭人使我掌其北門之管，若潛師以來，國可得也。”穆公誘諸蹇叔。蹇叔曰：“勞師以襲遠，非所聞也。師勞力竭，遠主備之，無乃不可乎？師之所爲，鄭必知之，勤而無所，必有悖心。且行千里，其誰不知？”公辭焉，召盟明·西乞·白乙，使出師于東門之外。蹇叔哭之，曰：“孟子！吾見師之出而不見其入也！”公使謂之曰：“爾何知？中壽，爾墓之木拱矣。”蹇叔之子與師，哭而送之，曰：“晉人禦師必於殽，殽有二陵焉。其南陵，夏后臯之墓也；其北陵，文王之所辟風雨也。必死是閒，余收爾骨焉！”秦師遂東。⁶⁾

이것은 쫓 文公의 죽음에 主戰派들이 秦과의 一戰을 미리 선포한 것으로 殽之戰의 伏線이 쫓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바로 이어 秦 穆公이 욕심에 눈이 멀어 蹇叔의 말을 듣지 않고 秦軍이 무리하게 出師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때 秦은 쫓의 공격을 예상치 못한데 반해, 쫓은 이미 필승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었다. 여기가 戰前의 첫 단락에 속한다.

僖公 33년 봄, 秦나라의 군사가 周나라 王城의 北門을 지나갔다. 그때 전차의 좌우에 탔던 전사들이 투구를 벗고 전차에서 내려 天子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시 뛰어서 올라타는데, 그런 전차의 수가 三百이었다. 王孫 滿은 나이가 당시 아직 어렸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天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秦나라 군사는 경솔하고도 무례하오나,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경솔하면 智謀가 적고, 무례하면 질서가 없습니다. 험한 싸움터에 들어가 질서가 없고, 또 智謀마저 없다면 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秦나라 군사가 滑나라에 도착했다. 그 때에 鄭나라의 商人 弦高가 周나라에 장사하려 가던 중에 秦나라 군사와 마주쳤다. 그는 쇠가죽 네 필을 먼저 헌납하고, 이어 소 열 두 마리로 군사들을 대접하며 말했다. “저의 임금께서는 그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저희 나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따라오신 분들을 위로케 했습니다. 가난한 저의 나라는 따라오신 분들이 여기 머무실 동안에는 하루 분의 양식과 나무를 대고, 떠나실 때에는 하룻밤의 호위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급히 사람을 시켜 鄭나라에 알렸다. 鄭나라 穆公은 사람을 시켜 秦나라의 將帥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살펴보게 했더니, 그들은 수레에 실을 짐을 묶어놓고서, 무기를 손질하고 말에 먹이를 먹이고 있었다. 그래서 鄭 穆公은 虢武子를 시켜 다음같이 말했다. “당신들이 오랫동안 이 곳에 머물러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소. 당신들이 떠나니 하나 알려 드리리다. 鄭나라에는 秦나라 사냥터 具圃와 같은 原圃가 있소. 그러니 당신들이 스스로 原圃의 사슴을 잡고 식량을 해결하여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오.” 이를 듣고 놀란 杞子는 齊나라로 도망가고, 逢孫과 揚孫은 宋나라로 도망갔다. 孟明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鄭나라가 준비를 하니, 鄭나라 땅을 바랄 수는 없다.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고, 포위한들 후원이 없을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滑나라를 멸망시키고는 돌아갔다. 쫓나라의 原軫이 말하기를, “秦나라는 蹇叔의 말을 어기고 탐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젠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인

6) 《左傳》 僖公 32年

것이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잃을 수 없고, 적을 놓아줄 수 없다. 적을 놓아주면 禍가 생기고, 하늘의 뜻을 어기면 불길하게 되니, 반드시 秦나라 군사를 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欒枝가 말하기를, “秦나라가 배운 은혜를 아직 감지 않고 그 나라의 군사를 친다는 하니, 先君이 마음속에 아직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말에 대해서 先軫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秦나라는 우리 나라가 상을 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와 同姓인 나라를 쳤다. 秦나라가 무례한데, 무슨 은혜를 아직도 말하는가? 내 들기로 ‘하루라도 적을 놓아주면 후세 두고 두고 禍가 된다’라고 하오. 후손을 위해 생각한 것이니, 오히려 이것은 先君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지” 이에 바로 명령을 내리어 姜戎의 군대를 동원하고, 晉 襄公은 喪服을 걸게 하고 흰 띠를 들었으며, 梁弘은 御車를 몰고, 萊駒가 御車의 오른편에 섰다.

(春, 秦師過周北門, 左右免胄而下, 超乘者三百乘. 王孫滿尚幼, 觀之, 言於王曰: “秦師輕而無禮, 必敗. 輕則寡謀, 無禮則脫, 入險而脫, 又不能謀, 能無敗乎?” 及滑, 鄭商人弦高將市於周, 遇之, 以乘韋先, 牛十二犒師, 曰: “寡君聞吾子將步師出於敝邑, 敢犒從者, 不腆敝邑, 爲從者之淹, 居則具一日之積, 行則備一夕之衛.” 且使遽告于鄭. 鄭穆公使視客館, 則束載萬兵秣馬矣, 使皇武子辭焉, 曰: “吾子淹久於敝, 唯是脯資餼牽竭矣, 爲吾子之將行也, 鄭之有原圃, 猶秦之有具囿也, 吾子取麋鹿, 以間敝邑, 若何?” 杞子奔齊, 逢孫揚孫奔宋. 孟明曰: “鄭有備矣, 不可冀也. 攻之不克, 圍之不繼, 吾其還也.” 滅滑而還. 晉原軫曰: “秦違蹇叔, 而以貪勤民, 天奉我也, 奉不可失, 敵不可縱. 縱敵, 患生; 違天, 不祥, 必伐秦師!” 欒枝曰: “未報秦施, 而伐其師, 其爲死君乎?” 先軫曰: “秦不哀吾喪, 而伐吾同姓, 秦則無禮, 何施之爲? 吾聞之: ‘一日縱敵, 數世之患也.’ 謀及子孫, 可謂死君乎!” 遂發命, 遽興姜戎, 子墨衰經, 梁弘御戎, 萊駒爲右.)⁷⁾

秦은 行軍과 동시에 그 행적이 공공연하게 드러난다. 또 王孫 滿은 秦軍에 軍紀가 없음을 보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 분명한 예언을 한다. 鄭나라의 愛國商人 弦高의 등장으로 鄭나라도 준비를 하게된다. 아울러 秦에 內應하기로한 杞子등 秦의 병사들도 鄭나라에서 도망친다. 秦軍은 예상 밖의 상황에 허둥대다가 回軍하게 되고, 晉은 국내 여론을 통일하고 전쟁에 전력을 다한다. 이 단락은 위의 첫 단락과 함께 戰前의 상황을 매듭 한다.

여름 4月 辛巳日, 秦나라 군사를 殽에서 패배시키고 百里孟明視·西乞術·白乙丙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夏四月辛巳, 敗秦師于殽, 獲百里孟明視·西乞術·白乙丙以歸.)

이 단락은 戰時의 상황을 기술한 부분이다. 戰時의 상황은 단 한 줄, 24字 이다. 그 아래는 모두 戰後의 이야기이다.⁸⁾ 위에서 보듯 左氏는 戰時 쌍방의 交戰상황을 그

7) 《左傳》 僖公 33年

8) 《左傳》 僖公 33年: 「遂墨以葬文公, 晉於是始墨. 文嬴請三帥, 曰: “彼實構吾二君, 寡君若得

저 위와 같이 적고 있다. 이것은 편폭의 길이로 볼 때 長勺之戰 보다 더욱 심한 정도로 戰時를 생략한 敘述태도 이다. 戰後의 상황에 대해 짧이 秦의 세 장수를 놓아 준 일과 秦 穆公의 반성 및 不替孟明의 사실을 서술하는데, 이것은 훗날의 사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준 것이다. 뒷날 秦은 다시 孟明을 總帥로 짧을 공격하게 된다. 즉 般之戰 역시 중점은 戰前의 상황에 있다. 蹇叔의 '哭師', 王孫滿의 '觀師', 弦高的 '犒師', 이 세 가지 상징적 사건은 매우 효과적으로 전쟁의 결과를 암시한다. 필자는 左氏가 치밀한 계산 아래 이 세 가지를 선택해 서술했다고 본다. 이 故事들은 풍부한 상징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동시에 갖고 있다. 戰前의 상황에 이토록 많은 편폭을 할애한 것은 독자에게 秦軍의 패배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으로 승패는 이미 결정 됐다. 戰時 쌍방의 작전이나 병력은 하등의 의미도 없다. 따라서 어떤 戰時묘사도 贅言이 될 뿐이다.

2. 戰時

長勺之戰과 般之戰의 경우는 모두 戰前상황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을 한 경우이다. 이 전쟁들은 모두 사전에 전쟁의 승패에 관한 각종 요소들을 분명하게 처리하였다. 따라서 戰時의 상황이 비록 적거나 없더라도 이미 독자들은 전체 전쟁의 과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전쟁들의 경우는 左氏는 위와 다른 태도의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左氏는 戰前의 상황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戰時의 상황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한다. 이런 대표적인 예는 짧·楚의 鄢陵之戰이다. 당시 楚나라는 莊王이래 국력이 계속 신장되어, 共王이 즉위한 후에는, 魯·蔡·許·陳·宋·秦·衛·鄭·齊·曹·邾·薛·鄆과 蜀에서 盟을 맺고 이들의 盟主로 군림한다. 다만 짧나라만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상대였다. 楚 共王은 짧과의 미봉적인 우호 관계를 파기하고 霸者의 지위를 굳히고자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나온다. 짧 厲公 또한 차분히 국력을 준비하다가 楚의 배신행위에 맞서 親征을 하게 된다. 鄢陵之戰은 이런 형세하에서 전개된 전쟁이다. 左氏는 兩國의 상황에 대한 서술로 戰前의 상황을 대신한다. 楚나라의 상황은 먼저 申叔時

而食之，不厭，君何辱討焉？使歸就戮于秦，以逞寡君之志，若何？”公許之。先軫朝，問秦囚。公曰：“夫人譖之，吾舍之矣。”先軫怒，曰：“武夫力而拘諸原，婦人暫而免諸國，墮軍實而長寇讎，亡無日矣！”不顧而唾。公使陽處父追之，及諸河，則在舟中矣。釋左驂，以公命贈孟明。孟明稽首曰：“君之惠，不以寡臣辱敵，使歸就戮于秦，寡君之以爲戮，死且不朽。若從君惠而免之，三年將拜君賜。”秦伯素服郊次，鄉師而哭，曰：“孤違蹇叔，以辱二三子，孤之罪也。”不替孟明，曰：“孤之過也，大夫何罪？且吾不以一眚掩大德。”

의 말을 빌려 분석한 뒤, '奸時以動'이라는 말로 有出無歸의 군대가 될 것이라 단정한다.⁹⁾ 이어 鄭나라의 姚句耳가 등장해 楚軍을 시찰하고 楚軍이 질도가 없어 패할 것이라 판단한다.¹⁰⁾ 본격적으로 兩軍이 대치했을 때, 晉나라의 卻至는 楚나라에 六間이 있다고 지적한다.¹¹⁾ 이렇게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 입에서 한결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로써 楚軍의 패배는 이미 독자에게 뚜렷이 암시된다. 晉나라의 경우는 전쟁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내는 范文子가 걱정하는 것은 '外寧必有內憂'이다. 즉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승리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태도를 보여준다.¹²⁾ 그러나 막상 전쟁에 돌입하여서는 楚나라의 막강한 戰力 때문에 한 차례의 접전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左氏는 위에 소개한 여러 사례와는 달리 戰時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戰時의 편폭이 三分之一 이상이 된다. 左氏는 쌍방이 서로 허실을 엿보는 것을 시작으로 戰時에 대한 묘사를 써 내려간다. 매우 절묘한 것은 대화 장면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¹³⁾ 楚王과 伯州犁의 대화 속에는 晉軍의 긴장되고 昂揚된 사기가 전해 온다. 인물 대화로 사태의 발원 양상을 그려낸 뛰어난 서사 기법이다.¹⁴⁾ 본격적으로 兩軍이 전투를 개시하는 부분의 처리도 독특하다. 이 단락은 쌍방의 비범한 인물들을 통해 전쟁의 격렬함과 參戰者들의 정서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 9) 《左傳》 成公 15年: 「申叔時老矣。在申, 聞之, 曰: “子反必不免。信以守禮, 禮以弑身, 信禮之亡, 欲免, 得乎?”」; 《左傳》 成公 16年: 「過申, 子反入見申叔時, 曰: “師其何如?” 對曰: “德刑詳義禮信, 戰之器也。德以施惠, 刑以正邪, 詳以事神, 義以建利, 禮以順時, 信以守物, 民生厚二德正, 用利而事節, 時順而物成, 上下和睦, 周旋不逆, 求無不具, 各知其極。故《詩》曰: “立我烝民, 莫匪爾極。” 是以神降之福, 時無災害, 民生敦龐, 和同以聽, 莫不盡力以從上命, 致死以補其闕, 此戰之所由克也。今楚內棄其民, 而外絕其好; 而食話言: 奸時以動, 而疲民以逞, 民不知信, 進退罪也。人恤所底, 其誰致死? 子其勉之! 吾不復見子矣。”」
- 10) 《左傳》 成公 16年: 「姚句耳先歸, 子驪問焉, 對曰: “其行速, 過險而不整, 速則失志, 不整, 喪列, 志失列喪, 將何以戰? 楚懼不可用也。”」
- 11) 《左傳》 成公 16年: 「卻至曰: “楚有六間, 不可失也。其二卿相惡, 王卒以舊, 鄭陳而不整, 蠻軍而不陳, 陳不違晦, 在陳而罷, 合而加罷, 各顧其後, 莫有關心; 舊不必良, 以犯天忌, 我必克之。”」
- 12) 《左傳》 成公 16年: 「范文子曰: “若逞吾願, 諸侯皆叛, 晉可以逞, 若唯鄭叛, 晉國之憂, 可立俟也。”; 范文子不欲戰, 卻至曰: “韓之戰, 惠公不振旅; 箕之役, 先軫不反命; 邲之師, 荀伯不復從, 皆晉之恥也。子亦先見君之事矣, 今我聞楚, 又益恥也。” 文子曰: “吾先君之亟戰也, 有故, 秦狄齊楚皆彊, 不盡力, 子孫將弱, 今三彊服矣, 敵楚而已, 惟聖人能外內無患, 自非聖人, 外寧必有內憂, 盍釋楚以為外懼乎?”」
- 13) 《左傳》 成公 16年: 「楚子登巢車, 以望晉軍, 子重使大宰伯州犁侍于王後, 王曰: “騁而左右, 何也?” 曰: “召軍吏也。” 皆聚於中軍矣。曰: “合謀也。” 張幕矣。曰: “虔卜於先君也。” 徹幕矣。曰: “將發命也。” 甚懼, 且塵上矣。曰: “將塞井夷鼃而為行也。” 皆乘矣, 左右執兵而下矣。曰: “聽誓也。” 戰乎? 曰: “未可知也。” 乘而左右皆下矣。曰: “戰禮也。”」
- 14) 錢鍾書 《管錐編》(北京, 中華書局, 1994), 210等

魯 成公 16年, 쑤나라 大夫 呂錡가 꿈을 꾸니, 달을 쏘아 맞히고 물러나다가 진홍 속에 빠졌다. 그는 그 꿈의 길흉을 점쳤다. 해몽하는 말이 “姬姓은 해에 해당하고, 異姓은 달에 해당되니, 달은 분명 楚나라 王일 것이요, 그리고 쏘아 맞히고 물러나다 진홍 속에 빠졌다는 것은 그대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楚나라 共王을 쏘아 눈을 맞히었다. 그러자 楚王은 養由基를 불러, 화살 두 개를 주고 呂錡를 쏘게 했다. 결국 목에 맞아 활집에 엮히려 죽었다. 養由基는 남은 한 개의 화살을 바치며 楚王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쑤나라 郤至는 세 번이나 楚 共王의 직속부대와 상대가 되었는데, 그는 共王만 보면 반드시 전차에서 내려, 투구를 벗고 재빨리 달려 도망쳤다. 그걸 본 楚 共王은 工尹인 襄에게 활을 선물로 보내며, 다음같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격전중에 보니, 쑤軍가운데 붉은 색 쇠가죽으로 된 군복을 입은 사람은 君子임에 틀림없다. 나를 알아보고는 피하는데 아마 부상을 당한 것 같다”

郤至는 자기를 찾아온 楚의 손님을 만나, 투구를 벗고 楚나라 君主의 말을 전해 듣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楚 君主의 外臣인 郤至가 이릅니다. 저는 우리 임금을 따라 軍事에 참가했는데, 楚國 君主의 덕택으로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로 감히 楚君께 찾아가 拜禮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관찮다고 말씀을 올려 주십시오. 楚君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戰時라, 使者인 귀관에게 예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使者에게 세 번 예를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났다.

쑤나라 韓闞이 鄭나라 君主를 추격했다. 그의 전차를 모는 社濯羅가 말했다. “빨리 쫓아잡시다. 鄭나라 君主의 전차를 모는 자가 자주 뒤를 돌아보아, 말 모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韓闞이 대답했다. “두 번이나 君主를 육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는 추격을 중지했다.

郤至가 鄭나라 君主를 쫓았다. 그가 탄 전차의 오른쪽에 선 弗翰胡가 말했다. “날췌 병사를 시켜 전방에서 치게 하십시오. 그때 저는 저 전차에 뛰어올라 鄭나라 君主를 잡겠습니다.” 郤至가 대답했다. “君主를 상하게 하면 형벌이 있게 된다.” 그도 역시 추격을 그쳤다. 그 때에 鄭나라 君主의 전차를 몰던 石苜가 말했다. “전에 衛나라 懿공이 싸움 중에 君主임을 나타내는 깃발을 거두지 않았다가 쫓아서 패배했습니다.” 이에 깃발을 거두었다. 唐苟가 石苜에게 말했다. “당신은 주군 옆에 있으시오. 패전할 경우는 주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 나는 당신만 못한 사람이니, 당신이 주군을 모시고 빨리 가시오. 나는 여기서 쑤軍을 막겠소이다.” 唐苟는 결국 그 곳에서 전사했다.

楚나라 군사가 험한 곳에 물리자, 叔山弇이 養由基에게 말했다. “비록 마음대로 활을 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나라를 위하는 일이니, 당신은 꼭 활을 쏘시오.” 이 말에 養由基가 쑤軍에 화살 두 대를 쏘아 다 명중시켰다. 그때에 叔山弇이 쓰러진 쑤나라의 병사를 잡아 던지니, 쑤軍의 전차의 橫木이 부러졌다. 이 때문에 쑤軍은 추격을 중지했으나, 楚나라의 公子 莠를 잡았다.

樂鍼이 楚나라 子重의 깃발을 보고서는, 쑤나라 厲公에게 청을 드렸다. “楚나라 사람이들이 이르기를, 저 깃발은 子重의 旗라고 했으니, 저 사람은 아마 子重 같습니다. 전에 제가 楚나라에 使行갔을때, 子重이 쑤나라의 용맹은 어디에 드러나는가 묻기에, 대답하기를 ‘大軍을 잘 정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그 밖에 또 있느냐?’라고 묻기에, ‘행동거지가 여유있고 급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전투를 하는데 使

를 보내지 않고는 잘 정돈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사태가 급하다고 신용을 잃는다면, 여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청컨대 사람을 시켜 子重에게 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晉 厲公이 허락했다. 欒鍼은 사람을 시켜 酒器를 가지고 子重에게 술을 권했다. 그리고 이렇게 전했다. “저의 主君에게 부릴 사람이 부족하여, 欒鍼이 창을 들고 측근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를 수행하는 이들을 접대하지 못하고 저를 보내 대신 술을 권하게 했습니다.”

子重은 “그 분이 전에 저와 楚나라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말씀 때문에 술을 보내신 것 같소.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오?” 라고 말하고, 술을 받아 마셨다. 使者를 돌려 보낸 뒤, 다시 싸우라는 북을 울렸다. 전투는 새벽부터 황혼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았다.

子反이 軍관에게 부상자를 살피며, 보병과 전차부대의 병력을 보충하며, 무기를 수리하고, 전차와 말을 정비하며,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명령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 晉나라는 이걸 듣고 걱정하였다. 그러자 苗賁皇이 軍대를 돌며 이렇게 말했다. “전차를 검사하고, 보병을 보충하며, 말을 잘 먹이고, 무기 손질을 하며, 軍陳을 바르게 하고, 대열을 단단히 하며, 포를 먹이고, 다시 승리를 기원하는 제를 올려라. 내일 다시 싸운다.” 그리고는 楚나라 포로들을 일부러 도망치게 했다.

楚 共王이 晉의 사정을 듣고서, 子反을 불러 상의하려 했다. 그런데 穀陽豎가 子反에게 술을 권하여 子反이 취했으므로 만날 수가 없었다. 楚王이 이를 듣고 말했다. “하늘이 楚나라를 지게 하는가 보다. 나는 여기서 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이리 말하고는 밤중에 도망가 버렸다. 晉나라 軍대가 楚나라 진영에 들어가 싸울 동안 楚軍이 남긴 양식을 먹었다. (呂錡射月, 中之, 退入於泥. 占之, 曰: “姬姓, 日也; 異姓, 月也, 必楚王也. 射而中之, 退入於泥, 亦必死矣.” 及戰, 射共王中目, 王召養由基, 與之兩矢, 使射呂錡, 中項, 伏殺, 以一矢復命. 卻至三遇楚子之卒, 見楚子, 必下, 免胄而趨風. 楚子使工尹襄問之以弓, 曰: “方事之殷也, 有韎韐之附注, 君子也. 識見不殺而趨, 無乃傷乎?” 卻至見客, 免胄承命, 曰: “君之外臣至從寡君之戎事, 以君之靈, 間蒙甲冑, 不敢拜命, 敢告不寧, 君命之辱, 爲事之故, 敢肅使者.” 三肅使者而退. 晉韓厥從鄭伯, 其御社誦羅曰: “速從之? 其御屢顧, 不在馬, 可及也.” 韓厥曰: “不可以再辱國君.” 乃止. 卻至從鄭伯, 其右弗翰胡曰: “謀略之, 余從之乘, 而俘以下.” 卻至曰: “傷國君有刑.” 亦止. 石首曰: “衛懿公唯不去其旗, 是以敗於箕.” 乃內旌於彀中. 唐荀謂石首曰: “子在君側, 敗者壹大, 我不如子, 子以君免, 我請止.” 乃死. 楚師薄於險, 叔山冉謂養由基曰: “雖君有命, 爲國故, 子必射.” 乃射, 再發, 盡殫. 叔山冉搏人以投, 中車, 折軾. 晉師乃止. 囚楚公子筏. 欒鍼見子重之旌, 請曰: “楚人謂夫旌, 子重之麾也, 彼其子重也. 日臣之使於楚也, 子重問晉國之勇, 臣對曰: ‘好以衆整.’ 曰: ‘又何如?’ 臣對曰: ‘好以瑕.’ 今兩國治戎, 行人不使, 不可謂整; 臨事而食言, 不可謂瑕. 請攝飲焉.” 公許之. 使行人執楛承飲, 造于子重, 曰: “寡君乏使, 使鍼御持矛, 是以不得犒從者, 使某攝飲.” 子重曰: “夫子嘗與吾言於楚, 必是故也. 不亦識乎!” 受而飲之, 免使者而復鼓. 旦而戰, 見星未已. 子反命車吏察夷傷, 補卒乘, 繕甲兵, 展車馬, 鷄鳴而食, 唯命是聽. 晉人患之. 苗賁皇徇曰: “蒐乘補卒, 秣馬利兵, 脩陳固列, 尊食申禱, 明日復戰.” 乃逸楚囚. 王聞之, 召子反謀. 穀陽豎獻飲於子反, 子反醉而不能見. 王曰: “天敗楚也夫! 余不可以待.” 乃宵遁. 晉入楚軍, 三日殺.)¹⁵⁾

戰時의 상황을 묘사한 단락이다. 먼저 楚 共王이 활을 눈에 맞은 것이 가장 중요한 돌발상황 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삼고 있다. 呂錡의 꿈은 사소한 일이지만 전쟁의 대사와 관련된 것이기에 전투의 시작과 맞물려져 있는 것이다. 戰前의 여러 인물들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열할 때, 여러 가지로 쑤나라가 우세해 보였지만, 막상 전투를 해보니 쑤·楚의 실력이 伯仲하여 쉽게 승패를 내지 못한다. 최후의 순간 楚軍 元帥 子反이 술에 취하는 바람에 楚軍이 도망을 치면서 승패가 결정난다. 쑤나라는 거의 요행으로 승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는 戰時의 상황이 승패에 직접적인 부분이다. 그런 까닭에 左氏가 필목을 아끼지 않고 자세하게 그려낸 것이다. 이렇게 子反의 실수 하나로 전쟁이 끝이 나기에 때문에, 戰後의 상황은 子反의 자살로 간단히 처리된다.¹⁶⁾ 대개 大國간의 爭霸는 그 실력이 伯仲한 까닭에 戰時의 상황 묘사가 두드러진다. 쑤나라의 郤至, 欒鍼, 韓闕, 苗賁皇의 언행에서 그들의智略이 드러나고, 秦나라의 子重, 叔山冉, 養由基의 묘사에는 그들의 武勇이 엿보인다. 전쟁의 승패에 관련된 인물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쑤楚의 鄆之戰, 鞞之戰, 鄢陵之戰 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모두 長文이라 인용에 어려움이 있어 생략하고자 한다. 첨언할 것은 이렇듯 객관적인 조건이 伯仲할 때는, 左氏는 戰時의 交戰상황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묘사한다는 것이다.

3. 戰後

秦·쑤 韓之戰의 경우는 위에 열거한 두 가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즉 戰後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韓之戰은 쑤 惠公 夷吾의 배은망덕한 일련의 행위가 일으킨 전쟁이다. 그는 쑤 獻公의 아들로 驪姬의 亂에 秦나라로 도주하게 된다. 쑤 獻公 사후, 夷吾는 秦에 땅을 바칠 것을 약속하고 秦의 도움을 얻어 내어 즉위한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흉년이 들자 곡식을 秦에게 얻고도, 秦이 기근이 들자 지원을 거절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¹⁷⁾ 계속되는

15) 《左傳》 成公 16年

16) 《左傳》 成公 16年: 「楚使邊, 及瑕, 王使謂子反曰: “先大夫之覆師徙者, 君不在, 子無以爲過, 不穀之罪也。” 子反再拜稽首曰: “君賜臣死, 死且不朽, 臣之卒實奔, 臣之罪也。” 子重使謂子反曰: “初隕師徙者, 而亦聞之矣, 盍圖之!” 對曰: “雖微先大夫有之, 大夫命側, 側敢不義? 側亡君師, 敢忘其死?” 王使止之, 弗及而卒。」

17) 《左傳》 僖公 13年: 「冬, 晉厲驪, 使乞權于秦, 秦伯謂子桑: “與諸乎?” 對曰: “重施而報, 君將何求, 重施而不報, 其民必携, 携而討焉, 無衆, 必敗。” 謂百里: “與諸乎?” 對曰: “天災

惠公의 몰염치하고 패륜한 행동에 격분한 秦 穆公은 쫓나라를 치게 된다.¹⁸⁾ 도의나 명분으로 볼 때 쫓은 秦의 상대가 못했다. 쫓나라는 비록 군사수가 많았지만 전투에 대한 열의나 사기는 秦나라에 현저히 떨어졌다. 바로 韓簡이 말한 ‘師少於我, 鬪士倍我’의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쌍방이 비교적 큰 충돌이 없이 쫓나라의 패배로 끝이 난다. 그리고 惠公은 포로가 되어 秦으로 끌려간다. 이런 까닭에 左氏는 戰時의 상황에 대해 66字로 극히 간단히 서술한다. 秦 穆公의 戰車가 응덩이에 빠지고 생포될 찰나, 쫓의 慶鄭이 파렴치한 惠公을 증오한 나머지 자신의 主君을 구하지 않아서 오히려 穆公은 위기를 넘기고 惠公이 생포되는 믿지 못할 사건이 戰時 묘사의 전부이다.¹⁹⁾ 이것을 보면 左氏는 여전히 戰前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僖公 13, 14년에 이미 상세히 분석하고도,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僖公 15년에 그것을 정리해 설명해 준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쫓나라의 패전은 그저 패전이라는 결과만에 그치지 않고 국정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左氏는 戰後의 묘사에 三分之二 이상의 편폭을 할애하고 있다. 아래는 韓之戰 戰後묘사의 첫 단락으로 쫓 惠公이 사로잡혀 秦나라로 압송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쫓나라의 大夫들은 君主를 위하여 머리를 풀어 내리고, 風餐露宿을 하며 秦軍을 따라갔다. 그러자 秦 穆公이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 그리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들의 主君과 함께 서쪽으로 가는 것은 쫓나라에 떠도는 꿈에 관한 얘기를 실현하는 것이오, 내 어찌 감히 그대들의 主君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겠소!” 그러자 쫓나라의 大夫들은 三拜를 하고 머리를 땅위에 대고 다음같이 아뢰었다. “君께서는 頂天立地하고 계시니, 하늘과 땅이 실로 君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도 君의 말씀을 삼가 받들겠습니다.”

秦 穆公의 夫人이 쫓 惠公이 도읍으로 끌려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대자 釐과 그의 아우 弘, 그리고 딸 簡과 璧을 데리고, 臺에 올라 떨나무를 쌓고 앉았다. 그리고 喪服을

流行. 國家代有. 救災, 恤隣, 道也. 行道, 有福.” 丕鄭之子約在秦, 請伐晉. 秦伯曰: “其君是惡, 其民何罪?” 秦於是乎輸粟于晉, 自雍及絳相繼. 命之曰: “汎舟之役.”; 《左傳》 僖公 14年: 「冬, 秦饑, 使乞糶于晉, 晉人弗與. 慶鄭曰: “背施, 無親; 幸災, 不仁; 貪愛, 不祥; 怒隣, 不義. 四德皆失, 何以守國?” 馮射曰: “皮之不存, 毛將安傅?” 慶鄭曰: “棄信, 背隣, 患孰恤之? 無信, 患作; 失援, 必斃, 是則然矣.” 馮射曰: “無損於怨, 而厚於寇, 不如勿與.” 慶鄭曰: “背施, 幸災, 民所棄也. 近猶營之, 況怨敵乎?” 弗聽. 退曰: “君其悔是哉!”

18) 《左傳》 僖公 15年: 「晉侯之入也, 秦穆姬屬賈君焉, 且曰: “盡納羣公子” 晉侯烝於賈君, 又不納羣公子, 是以穆姬怨之. 晉侯許賂中大夫, 既而皆背之. 賂秦伯以河外列城五, 東盡隰略, 南及華山, 內及解梁城, 既而不與, 晉饑, 秦輸之粟; 秦饑, 晉廢之糶, 故秦伯伐晉。」

19) 《左傳》 僖公 15年: 「壬戌, 戰于韓原, 晉戎馬還泞而止. 公號慶鄭, 慶鄭曰: “復諫違卜, 古敗是求, 又何逃焉?” 遂去之. 梁由靡御韓簡, 馮射爲右, 輅秦伯, 將止之. 鄭以救公誤之, 遂失秦伯. 秦獲晉侯以歸。」

입힌 사람을 보내 穆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재앙을 내려 두 나라 군주가 서로 玉帛을 교환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쭙나라 君主가 아침에 도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저녁에 죽을 것이고, 저녁에 들어온다면 저는 다음날 아침에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에 秦 穆公은 쭙 惠公을 靈臺에 가 두었다. 그러나 秦나라 大夫들은 그를 데리고 도움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러자 穆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쭙나라 君主를 생포한 것은 큰 전공을 가지고 도움으로 돌아가자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그를 도움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면 喪이 나게 되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大夫들 또한 무슨 이익이 있던 말인가. 그리고 쭙나라 신하들이 슬퍼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나를 감동시켰고, 天地神明으로 나를 속박하고 있다. 쭙나라 사 람들의 걱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분노를 키우는 것이고, 내가 나의 말을 실행하지 않으면 天地神明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큰 분노는 막기 어렵고, 天地神明을 배반하는 것은 상서롭지도 못한 일이니, 쭙나라 君主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公子 獫이 말했다 “죽이는 것만 못합니다. 살려서 후환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子桑은 이렇게 말했다. “쭙나라의 君主를 돌려보내고 태자를 인질로 삼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講和를 할 수 있습니다. 쭙나라가 아직 멸망할 리 없는데, 쭙의 君主를 죽이시면, 나쁜 결과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周의 大史였던 尹佚이 말하기를, ‘禍를 먼저 만들지 말고, 남의 혼란을 이용하지 말며, 남을 격분하게 말라. 분노가 커지면 감당하기 어렵고, 타인을 능멸하는 것은 이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秦 穆公은 쭙나라와 講和를 허락했다.

쭙 惠公은 郤乞을 본국에 보내 이 사실을 瑕呂飴甥에게 알리게 하고, 그를 오라고 하였다. 子金이 郤乞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다. “도성의 사람들을 궁궐 앞에 모으고, 君主의 명이라 하면서 賞을 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君主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돌아가게 되었지만 종묘사직을 욕되게 하였으니, 占으로 吉日을 정해 태자인 罔를 내 대신 君主로 세우라.’ 그래서 郤乞이 그대로 했더니, 모두들 이 말을 듣고 다 울었다. 이때 쭙은 田制를 개혁했다. 呂飴甥이 말했다. “임금께서 자기 걱정은 아 니하고 도리어 우리들을 걱정하시니, 이것이 큰 은혜이다. 우리는 어찌 임금님을 대해야 하겠는가?” 그러자 모두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물었다. 呂飴甥이 이렇게 대답 했다. “세금을 건어 무기를 보수하고, 새 임금을 돕자. 제후들이 우리가 임금님을 잃었지만 다시 새 임금님을 맞이하여 모두가 화목하고, 무기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들으면, 우리를 좋아하는 이는 격려할 것이고, 우리를 싫어하는 이는 두려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 유익할 것이다!” 모두들 기뻐했다. 쭙나라는 이 일로 인해 兵制改革이 시작되었다. (晉大夫反首拔舍從之。秦伯使辭焉，曰：“二三子何其感也！寡人之從晉君而西也，亦晉之妖夢是踐，豈敢以至？”晉大夫三拜稽首曰：“君履后土而戴皇天，皇天后土實聞君之言，群臣敢在下風。”穆姬聞晉侯將至，以大子籥弘與女簡璧登臺而履薪焉。使以免服衰經逆，且告曰：“上天降災，使我兩君匪以玉帛相見，而以興戎。若晉君朝以入，則婢子夕以死；夕以入，則朝以死。唯君裁之！”乃舍諸靈臺。大夫請以入。公曰：“獲晉侯，以厚歸也；既而喪歸，焉用之？大夫其何有焉？且晉人感憂以重我，天地以要我，不圖晉憂，重其怒也；我食吾言，背天地也。重怒，難任；背天，不祥，必歸晉君。”公子獫曰：“不如殺之，無聚惡焉。”子桑曰：“歸之而質其大子，必得大成，晉未可滅，而殺其君，祇以成惡，且史佚有言曰：‘無始禍，無怙亂，無重怒。’重怒，難任，陵人，不祥。”乃許晉平。晉侯使郤乞告瑕呂飴甥，且召之。子金教之言曰：“朝國人而以君命賞，且告之曰：‘孤雖

歸，辱社稷矣，其卜貳圜也。”衆皆哭，晉於是乎作爰田。呂甥曰：“君亡之不恤，而羣臣是憂，惠之至也，將若君何？”衆曰：“何爲而可？”對曰：“征繕以輔孺子，諸侯聞之，喪君有君，羣臣輯睦，甲兵益多，好我者勸，惡我者懼，庶有益乎！”衆說，晉於是乎作州兵。²⁰⁾

이것은 戰後 상황의 첫째 단락이다. 이 단락에서는 晉에서 시집은 秦 穆公의 夫人, 즉 穆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呂飴甥을 위시한 晉나라 신하들의 충성과 지략이 돋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晉나라가 內政改革에 착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어서 晉 獻公이 큰 딸 伯姬, 즉 후일의 穆姬를 秦에 시집 보낼 때, 나쁜 점괘가 나온 것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晉 惠公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됐다고 말한다. 이에 韓簡이 인간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는 요지의 말로 충고한다. 이것이 戰後의 두 번째 단락이 된다.²¹⁾ 譯文이 길어 생략하였다.

10월에 晉나라의 陰飴甥이 秦나라 君主를 만나, 王城에서 盟約을 맺었다. 그 때에 秦 穆公이 陰飴甥에게 “晉나라는 화목하고 있는가?” 물었다. 이에 대하여 陰飴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아랫사람들은 君主를 잃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들의 육진을 잃은 것을 슬퍼하기에,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군대를 다시 정돈하고 태자 圜를 君主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어찌 되놈을 섬길 것인가?’ 그러나 윗사람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君主를 사랑하지만 그가 秦나라에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여 군대를 정돈하며 秦나라의 下命을 기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秦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할 것이다. 죽어도 다시는 진나라를 배반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리라.’ 상황이 이와 같아 국내는 화목하지 못합니다.”

秦 穆公이 다시 물었다. “晉나라 사람들은 그대의 君主가 어찌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서 陰飴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랫사람들은 슬퍼하며 君主가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윗사람들은 秦나라 임금님의 마음을 헤아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여기웁니다. 아랫사람들은 ‘우리가 秦나라를 해롭게 했는데, 秦나라가 어찌 우리 君主를 돌려줄 것인가?’라 말합니다. 윗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 정했으니 秦나라는 반드시 君主를 돌려보낼 것이다. 배반한다면 붙잡고 굴복하면 놓이지

20) 《左傳》 僖公 15年

21) 《左傳》 僖公 15年: 「初, 晉獻公筮嫁伯姬於秦, 遇歸妹之際. 史蘇占之, 曰: “不吉. 其繇曰: ‘士刲羊, 亦無也; 女承筐, 亦無貲也. 西鄰責言, 不可償也. 歸妹之際, 猶無相也.’ 震之離, 亦離之震. 爲雷爲火, 爲嬴敗姬. 車說其輹, 火焚其旗, 不利行師, 敗于宗丘. 歸妹睽孤, 寇張之弧. 姪其從姑, 六年其逋, 逃歸其國, 而棄其家, 明年其死於高梁之虛.” 及惠公在秦, 曰: “先君若從史蘇之占, 吾不及此夫!” 韓簡侍, 曰: “龜, 象也; 筮, 數也. 物生而後有象, 象而後有滋, 滋而後有數. 先君之敗德, 及可數乎? 史蘇是占, 勿從何益? 詩曰: ‘下民之孽, 匪降自天. 僇咎背憎, 職競由人.’ 震夷伯之廟, 罪之也. 於是展氏有隲惡焉.”

는 것처럼 두터운 덕이 없고, 이보다 위엄있는 형벌이 없다. 굴복하는 자는 덕에 감복하게 되고, 배반하는 자는 형벌을 두려워한다. 이번의 싸움으로 秦나라는 제후의 으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君主로 세웠다가 도리어 그를 괴롭히고, 그 자리를 빼앗고는 다시 그 君位를 돌려주지 주지 않는다면, 은혜를 원한으로 바꾸는 일이니 秦나라는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다 듣고 秦 穆公은 말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晉 惠公의 숙소를 좋은 데로 바꾸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게 했다.

蛾析이 慶鄭에게 물었다. “어찌 다른 나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慶鄭이 대답했다. “나는 임금을 실패하게 하였고, 싸움에 지고서도 죽지 않고 도망을 쳤소. 이리하고도 군주가 죄지은 나에게 벌을 내리지 못하게 도망친다면 신하의 도리가 아니오. 신하로서 신하답지 못한다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소?” 11월에 晉 惠公이 돌아왔다. 그는 丁丑일에 먼저 慶鄭을 죽이고 도읍으로 들어갔다. 이 해 晉나라에 또 기근이 들었다. 秦 穆公은 晉나라에 곡식을 주고 말했다. “내가 그 군주는 싫어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唐叔이 제후로 작위를 받았을 때에 箕子가 말하기를, ‘그의 후손은 반드시 창성하리라.’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晉나라를 쉽게 얻을 수 있었는가? 나는 잠시 덕을 베풀어 주고, 훌륭한 후손을 기다리겠다.” 이 때부터 秦나라는 晉나라의 河東지역에서 세금을 걷고, 관리를 그곳에 배치했다. (十月, 晉侯飴甥會秦伯, 盟于王城. 秦伯曰: “晉國和乎?” 對曰: “不和. 小人耻失其君而悼喪其親, 不憚征繕以立圉也. 曰: ‘必報讎, 寧事戎狄.’ 君子愛其君而知其罪, 不憚征繕以待秦命, 曰: ‘必報德, 有死無二.’ 以此不和.” 秦伯曰: “國謂君何?” 對曰: “小人惑, 謂之不免: 君子恕, 以爲必歸. 小人曰: ‘我毒秦, 秦豈歸君?’ 君子曰: ‘我知罪矣, 秦必歸君. 貳而執之, 服而舍之. 德莫厚焉, 刑莫威焉. 服者懷德, 貳者畏刑, 此一役也. 秦可以霸. 納而不定, 廢而不立, 以德爲怨, 秦不其然.’” 秦伯曰: “是吾心也.” 改館晉侯, 饋七牢焉. 蛾析謂慶鄭曰: “盍行乎?” 對曰: “陷君於敗, 敗而不死, 又使失刑, 非人臣也. 臣而不臣, 行將焉入?” 十一月, 晉侯歸. 丁丑, 殺慶鄭而後入. 是歲, 晉又饑, 秦伯又飡之粟, 曰: “吾怨其君, 而矜其民. 且吾聞唐叔之封也, 箕子曰: ‘其後必大.’ 晉其庸可冀乎? 姑樹德焉, 以待能者.” 於是秦始征晉河東, 置官司焉.)²²⁾

위는 戰後의 세 번째 단락으로 韓之戰을 매듭짓는 부분이다. 秦 穆公은 晉 惠公을 돌려보내기가 싫어 시간을 끌다가 陰飴甥의 교묘한 언변에 설득당해 惠公을 귀국시킨다. 左氏가 이토록 자세히 이 단락을 서술한 것은 惠公의 生捕와 釋放이 韓之戰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韓之戰의 결과가 양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본래 韓之戰 자체는 晉 惠公 개인문제에서 야기된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後果는 적지 않은 변화로 나타난다. 秦·晉 두 나라의 정치적 변화가 그것이다. 먼저 晉나라는 일련의 개혁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더욱 의미있는 일은 秦나라가 드디어 晉나라의 河東지역을 차지해 東으로 진출하게 된 것으로, 이는 매우 큰 사건이다. 따라서 작자는 필목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戰後의 상황에 대한 이런 상세한 기

22) 《左傳》僖公 15年

술은 아마 이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左傳》은 전쟁의 여러 단계 시간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집중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戰前의 상황에 비교적 많은 묘사를 하는 경향이 보인다. 戰前의 묘사로 左氏는 讀者로 하여 戰前에 승패를 짐작하게 해준다. 戰時를 묘사할 때는, 戰前의 예측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패에 관련된 순간적인 상황을 이해시켜 준다. 戰後의 서술은 사태발전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것이 《左傳》 전쟁묘사와 전쟁의 세 時期와의 관계이다. 이렇듯 時期의 선택과 집중적인 묘사는 서로 어울려 효과적으로 전쟁을 설명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물론 左氏가 이렇듯 전쟁묘사에 탁월한 성취를 이룬 것은 바로 그가 전쟁의 승패에 관련된 사건만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戰前, 戰時, 戰後를 막론하고, 그 중 관건이 되는 부분에 집중적인 서술을 가한다. 그 외 승패와 무관한 사항들은 되도록 생략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필자는 이것을 집중과 생략의 원칙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까지는 글쓰기의 영역이지만, 그가 선택한 史料의 배치는 左氏의 주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다. 따라서 《左傳》의 전쟁묘사는 복잡한 전쟁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작자의 視點이 어디에 있던 간에 讀者들은 그의 視點, 더 정확히는 그의 의도에 따라 전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그의 작업이 우리가 春秋時代의 전쟁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제 몫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도 탁월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左傳》의 전쟁묘사가 지금까지도 人口에 膾炙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左傳》의 전쟁묘사는 승패와 관련된 핵심을 잡아 서술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이 태도는 戰前, 戰時, 戰後로 나누는 전쟁의 세 時期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즉 勝敗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時期에는 아낌없이 筆墨을 사용하고, 반대일 경우는 과감히 생략하고 있다. 本稿는 전쟁을 세 시기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左傳》의 전쟁묘사와 연계하여 살펴본 것이다. 물론 이런 제한적인 연구범위는 그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예컨대 인물 및 그 정신세계의 묘사, 서사와 서정의 결합, 전쟁 유

형에 따른 필치의 변화 등 많은 각도에서 분석할 여지가 많다. 이런 제반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갖추어 진다면 《左傳》전쟁묘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參考書目】

- 杜預 《春秋經傳集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杜預 注、孔穎達 疏 《春秋左傳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杜預 《春秋釋例》 北京, 中華書局, 1985
顧棟高 《春秋大事表》 北京, 中華書局, 1983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3
安井衡 《左傳輯釋》 台灣廣文書局, 台北, 1987
童書業 《春秋左傳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劉知幾 《史通》 台北, 台灣廣文書局, 1963
章學成 《文史通義》 北京, 中華書局, 1994
郭預衡 《中國散文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錢鍾書 《管錐編》 北京, 中華書局, 1994
郭預衡 《中國古代文學史長篇》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2
林紓 《左傳擷華》 北京, 商務印書館, 1921
游國恩 《先秦文學》 北京, 商務印書館, 1933
林紓 《春覺齋論文》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郭預衡 《中國散文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趙明 主編 《先秦大文學史》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993
漆緒邦 《中國散文通史》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94
譚家健 《先秦散文藝術新探》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周振甫 《中國文章學史》 北京, 中國文聯出版公司, 1995

【中文提要】

中國史傳文學中, 《左傳》最擅長描寫戰爭。春秋時期戰役甚多, 左氏對這些戰役敘述不是偏頗地站在某一國的立場上評論其是非曲直, 而是客觀地以嚴肅的歷史眼光和總攬全局的宏偉氣魄, 高瞻遠矚地把戰爭事件作為當時的重要社會現象來認識和反映的, 從而再現了那時風雲變幻的歷史面貌和博大深厚的時代主潮, 揭示了戰爭事件所蘊含的深刻的社會意義。拙稿為了便於從文藝上了解《左傳》關於戰爭的描

寫，便於對它的戰爭描寫的這個最根本的特點加以說明，拙稿把一次戰爭的整個過程分作三個大的階段來觀察：一，戰前：包括戰爭的起因，雙方的準備，心理狀態，戰爭雙方軍隊所處的位置等等；二，戰時：這裏指的是雙方進行交戰的實況；三，戰後：包括戰爭的結果及由此而引起的直接和間接的影響。一次戰爭所包含的事實，包括戰前戰時戰後所發生的各種事實，是極其複雜的，一一把它們都記載下來，事實上辦不到，而且也無必要，不抓住中心亂寫一通，反而會掩沒了事情的眞象而使讀者目迷五色，所以要抓住戰爭中最重要的東西寫。《左傳》的戰爭描寫之所以能做到不蕪雜，而沒有枝蔓之累，其原因就在於它在描寫具體的戰爭過程時，總是圍繞着戰爭的勝敗得失寫。因此，凡有關於戰爭的勝敗得失的事情，雖小必寫，無關於戰爭勝敗得失的事情，雖大定棄。這正是《左傳》的戰爭描寫在藝術上最根本的特點和藝術上動人的最根本的原因。在描寫整個一次戰爭時，或側重戰前，或加詳戰時情況的描寫，或用較多的篇幅交待戰後的情況，或既注重戰前情況的描寫，又同時注重戰時或戰後情況的描寫，或是三者并重，便無不可以。這就是《左傳》戰爭描寫的最大藝術特色。

【주제어】

《左傳》 戰爭描寫 戰前 戰時 戰後